

창4:1-10 성경 잘못 읽으면, 하나님을 무섭고 변덕스럽고 괴팍한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神처럼 믿기 쉽습니다. 그렇게 알고 믿으면, 결국은 믿는 사람 태도도, 삶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변덕스럽고 괴팍스럽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가인 재물은 물리치고 아벨 것만 받아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결국 동기를 하나님이 제공한 것 아니냐?"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아벨은 양을 잡아 피가 있는 재물을 바쳐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은 곡식을 바쳐서 거절했다고 그러합니다.

그 근거로 레위기 17 장 '피는 생명이니' 하는 제사 제도를 듭니다. 그럼 지침도 못 받은 가인이, 수천년 후 기준으로 평가된 꼴이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지침도 안 주고 재물을 물리친 하나님은 얼마나 알 수 없고 괴팍한 분이 됩니까? 첫 사람들에게 가족옷 해 입힌 것 말고는, 본문 어디도 피 있는 재물 바치란 명시도 암시도 없습니다. 받고 말고는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분 맘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직접적인 맥락에서 찾아야지, 수천년 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시대 착오'입니다. 가인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고, 까탈스런 하나님께 책임이 있나,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 4:1-10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9.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기도)

4 장부터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결과, 죄가 가정에서 사회로 퍼집니다. 3 장에서 사람들 범죄로 수직적인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깁니다. 그 결과 4 장부터는 수평적인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 사이의 교제도 끊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그 결과 사람끼리도 소외됩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라 곡식으로 제사하고, 아벨은 양을 치니까 양을 잡아 제사합니다. 그런데 아벨의 양은 받고, 가인 곡식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저는 재물 받거나 거절하신 걸, 가인과 아벨이 뭘 가지고 알았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도 그런 걸로 드러난 단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친 당사자들이 그걸 압니다. 그래서 가인이 뒤집어 집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 받고 말고는, 전적인 하나님 소관입니다. 분명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시간, 어떤 재능, 어떤 재물 드렸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럴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곁에 드러난 걸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알 길은 없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탁월한 재능과 엄청난 재물을 드리면 사람들은 감격시킬 수 있습니다. 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곁이 아니라, 바치는 사람 삶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연출되고, 음향 시설 잘 갖춰진 데서, 전문가가 음악하면서 드리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들 합니다. 작은 교회서 예배 드리다 코스타에 가서 예배 드러본 분들은 그 차이를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것이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끄럽게 드린 과부의 두 렵돈이, 헌금통에 절그령 대며 떨어진 금화보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비록 적어도 가진 모든

걸 바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걸, 남은 몰라도 적어도 예배자는 압니다, 가인과 아벨처럼.

사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떤 재물 드려야 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는 이 사건의 소재일 뿐입니다. 가인의 재물이 거부되고, 그에 대한 가인의 잘못된 연쇄 반응들이 이 사건의 주제입니다. 본문이 와우 접속사를 계속 쓰면서, 가인의 반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수평적인 혈육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추궁 당하는 과정을 연속적으로 바쁘게 본문은 그려냅니다. 죄는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죄인을 파괴하고, 주변을 함께 파멸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자는 재물과 재물 바치는 예배자들에게 집중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대조하고, 둘이 각각 드린 예물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받거나 거부하신 원인을 찾는데 집중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바친 재물과 그 재물 바친 두 사람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개는 당시는 계시되지도 않았던 기준을 가지고, 아마 가인이 재물 바치는 태도가 적절치 못했거나, 하나님 기준에 못 미쳤을 걸로 짐작합니다.

잠 21:27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당연히 하나님은 바치는 사람 마음 속 동기와 함께, 바치는 재물의 퀄리티를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거나 다른 사람 도울 때도, 우리가 드리거나 도울 수 있단 사실에 기뻐서 드리거나 도와야지,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걸 포기하는 지, 그것 count 하고 염려하면서는 절대 드릴 수도 도울 수도 없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 것 아닙니까? 따라서 count 하고 염려하는 대신, 기쁘게 가진 가장 좋은 걸 드리거나 좋은 걸로 도와야 합니다. 쓰다 남은 게 아니라.

본문 3-4 절에 단서의 일부가 나옵니다. 각자 자기 산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린 건 실제로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레위기에도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있는 제사만 나오지

않습니다. 곡식을 곱게 갈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 것은 곡식이라 안 받으셨고, 아벨 것은 피있는 재물이라 받으셨다는 건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은 3 절, 그냥 "땅의 소산"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벨은 4 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립니다. 짧지만 분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가인은 선별하지 않고 그냥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새끼'를 선별해서 드렸습니다. 처음 것은 온전하단 뜻, 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히브리 제사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가리킵니다. steak 도 기름 잘 섞인 marble 이 상품인 것처럼, 기름은 가장 좋은 걸 선별한 겁니다. 가인에 비해 아벨은 정성껏 가장 좋은 걸 선별한 차이가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드러진 재물에도 차이가 있지만, 드린 예배자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와 7 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골이 나 있는 가인이란 예배자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선을 행하면' 의문문으로 말씀하신 건 선을 행치 않는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 11: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가인과 아벨 둘 다 죄인이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만, 가인이란 예배자는 아벨과는 달리, 하나님이 받으심직하지 못한 사실을 밝힙니다.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가인이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고,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나?' 따질 때, 하나님과 자기 관계 아닙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말은 뒤집어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아벨 제사는 받고, 믿음없이 드린 가인 제사는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럼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야지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어째서 남 원망합니까? 가인 문제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할 시간에, 남 원망하면서 사람 쳐다 본 겁니다. 믿음없이 엉뚱한 데 보니까, 엉뚱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벨 저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벨 책임을 물어 죽입니다. 얼마나 논리가 잘못 됐습니까? 왜 하나님과 자기 관계를 사람의 관계로 돌립니까? 사실 가인의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 오십니다. 7절b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엉뚱한 논리에 빠져 격분하는 가인에게,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의 잘못된 논리를 바로 잡으시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허나 가인은 거절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시는데 거절한 겁니다. 그런 가인의 남은 삶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잘못 지적받을 때 사람 보거나 다른데 핑계될 게 아니라,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인 길이 아닌, 하나님 길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는 말은 가인이 죄 짓게, 질투란 놈이 문 앞에 잠복해 있다는 말입니다. 질투로 싹튼 분노를 다스려야 했는데, 그래서 죄가 마음 속에 교두보를 만들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가인은 질투에 휩싸인 나머지, 죄가 마음에 교두보를 짓게 하고 맙니다. 오늘도 죄는 우리 마음에 교두보를 짓기 위해, 질투부터 자극합니다. 그 자극에 굴복하면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죄의 교두보가 마음에 자리잡게 됩니다. 교두보가 확보되면, 사단이 그것만 건드리면 죄는 자동으로 짓게 됩니다. 사단의 교두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형이 동생을 질투해 죽일 정도로, 인간성은 점점 타락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는, 반드시 사람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외동인 아이가 동생 볼 때, 그런 박탈감과 피해의식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동생 본 집 심방할 때마다, 형이나 언니부터 먼저 허그해

줍니다. 그런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어른들 사이에도 종종 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손해본 것 같습니까? 옳드려 기도 하란 시호입니다. 언짢은 말 들었습니까? 언짢다는 건 옳드려 기도하란 신호입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내 문제입니다. 진솔하게 하나님과 내 관계를 돌아 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지, 남에게 눈 돌려서는 문제가 커지기만 합니다.

자기는 권리 뺏겼다 그러는데, 누구도 빼앗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내 문제지, 내 책임을 남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게 질투입니다. 질투를 죄가 아닌 줄로들 착각합니다. "마음 속에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건데, 그게 뭘 죄냐?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없는거지!" 그러나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속 질투가 있으면서, 동시에 마음속 평화는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남이 잘 사는 게 늘 문제 아닙니까? 내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남이 잘되기 때문이지.

의롭다 생각한 나는 안되고, 저 죄인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나도 믿고 저도 믿는데, 왜 저는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인가' 비교하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질투가 싹 틔웁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잘 되는거 보고 시기 하십니까? 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과 내 관계의 문제라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 마음이 질투의 바닥에 깔렸기 때문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귀국해 대통령을 만나, '한국인들이 어떻더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사 답변이 "한국인은 배 고프는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미국인도 겪어보니, 별 다르지 않습니다.

배 아픈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촌이 잘 살고, 형제가 잘 살면 문제가 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가, 얼마나 바로 서 있나, 거기 집중하십시오. 남들이 뭐라든 말든,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형에 앞장선 유대 종교지도자들 심리도 보십시오. 질투 때문 아닙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와 백성들 신망받던 종교지도자들 마음 속의 질투, 그 질투가 예수님을 처형시킨 심리적 원인입니다. 질투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크든 작든 질투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질투가

썩트리 시작하면, 건잡을 수 없습니다.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쪽에서 지은 인류 두 번째 죄가 동생을 죽인 죄고, 그 죄는 질투에서 나왔습니다.

비교할 건 따로 있습니다. 역사에 가설이 없지만, 만약 가인이 '왜 내 건 안 받으시고 아벨 건 받으셨나?' 그걸 정말 진지하게 따진다면,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성껏 제사하고자 한다면, 달리 접근했어야 합니다. 드린 재물 자기 걸로 알고 "내가 아까운 걸 바쳤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이런 악하고 죄악된 연쇄반응이 나옵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져온 재물이 예배자를 대표하니까 거기에 예배자의 상태가 묻어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자 자신입니다.

예배자 가인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고,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지 않았고, 대신 질투하고 그 질투를 불태우다, 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지, 그런 삶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삶이 되고 있는지, 예배자로 합당하게 내 삶과 나를 대표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 보십시오. (기도)